

매스컴이 제공하는 이미지의 실체

텔레비전문화의 위험 경고한 「잃어버린 정보의 시대」



지구가 이처럼 치명적인 오염에 처하도록 인류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TV매체의 편파적 보도 때문이다.

3년전 빌 맥키번(Bill Mckibben)은 「자연의 종말」이란 책을 출간했다. 제목이 시사하듯 그것은 우리 지구의 상태에 대한 경고를 발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출간된 「잃어버린 정보의 시대」(「THE AGE OF MISSING INFORMATION」, 262pp. New York : Random House)는 그 속편이라고 할 만하다. 저자 맥키번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날 인류가 처한 생활환경의 치명적인 위험 앞에서, 왜 그다지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고민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데 대한 사색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왜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 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과연 왜 그런 것일까?

맥키번의 시험적인 이론은 우리들 대부분의 무지에 관한 것인데, 그 무지의 이유는 우리들이 정보를 텔레비전을 통해 획득하기 때문이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신의 그러한 시험적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그는 일반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던 기상천외의 방식을 시도

한다. 우선 그는 워싱턴 근교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郡에서 수신되는 미국 텔레비전 방송들 모두를 모니터하였다. 그 방송들은 103개 채널에 이르렀다. 1990년 5월3일의 24시간 동안 이 103개 채널의 전방송을 그는 수많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그후 그는 이들 방송들을 하루에 대략 10시간씩 시청하는데 6개월의 세월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저자의 노트에 의하면 이들 필름을 대조하기 위해 가졌던 일주일의 여름휴가 외에는 하루도 빠짐없는 강행군이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 특히 6개의 기독교방송 채널, 4개의 상업방송 채널, 그리고 9개의 공공방송을 주목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이 자연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관심의 초점으로 삼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백번 재방영하면서 꼼꼼히 모니터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는 오늘날 그 어느 누구보다도 1990년 오늘날의 방송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구비할 수 있었다.

이들을 통해 두개의 복합적인 보

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는 텔레비전의 관점에서 지켜본 지구의 문제였으며, 또 하나는 「24시간 동안」 저자가 듣고, 보고, 냄새맡고 느꼈던 지구의 입장에서 지켜본 지구의 문제였다. 이 두 보고서가 이 책 「잃어버린 정보의 시대」를 구성하게 된 토대였다.

사실 우리에게 103개의 텔레비전 채널을 동시에 채집하여 조사한다는 것은 드러매틱하긴 해도 조금은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발상이다. 오늘날 텔레비전이 하고 있는 일들의 근본을 적출해내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하루에 방영되는 모든 방송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어처구니없는 바보짓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자 맥키번은 군소리없도록 완벽하게 오늘날 텔레비전의 본질을 까발리는 데 성공하고 있다. 아마도 어느 환경주의자들이 들이미는 설득력있는 자료보다도 더 생생한 자료를 그는 우리 코앞에 들이대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본다.

먼저 그에 의하면 요즘 시청자들

이 보고듣고 있는 텔레비전의 정보 대부분은 마치 우리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듯한 감을 준다. 저자가 잘 지적하듯 텔레비전에 비친 우리 지구의 모습은 두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뉜다. 1905년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이다. 1950년대 이전의 모습은 흐릿한 회색이 주조를 이루면서 여기저기에 색깔들이 덕지덕지 붙은 것이라면 그 이후의 것은 생생하고 화려하면서 시간의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인데 이들 이미지는 모든 채널들에서 계속 재방송되면서 시청자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예컨대 MTV에 대한 서베이를 보면 21세에서 25세에 이르는 미국청년들이 좋아하는 쇼는 「브래디 번치쇼」라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그 쇼프로는 3세에서 7세에 이르는 유아들이 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 쇼프로그램에서 받아들이는 이미지 속에는 약 18년이라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그 이미지들이란 과연 얼마나 저열

한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완벽하고 안전한 행성에서 오직 소비적이고 제마음대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이미지 외에는 그 어떤 위기의 전조도 전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지구는 이러한 브래디 번치쇼와 유사한 수백만 더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이미지가 환경의 위험을 도외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그는 이 한가지 프로그램만으로 그러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진정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95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이 42년 동안 텔레비전을 통해 받아들인 실체란 것은 바로 이러한 이미지들이 마치 인간적인 삶의 유일한 패턴이나 또는 어떤 규범으로 여겨지게 된 데 있다. 이러한 저자의 통찰은 우리가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보는 행위만으로는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철학적인 반성적인 측면이다.

저자 맥키번은 그렇다고 해서 텔레비전문화의 敵은 아니다. 그는 텔레비전의 힘과 그 뛰어난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30대의 사람들 대부분처럼 그 역시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낸 TV세대의 일원인 것이다. 그가 고민하는 것은 왜 환경론자들의 경고가 그다지 실감나게, 그리고 진지하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가를 텔레비전 문화의 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그 경박성과 무역사성을 통해 유력한 근거를 제시하는 점에 있었고, 그 점은 설득력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그의 ‘노동’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저무는 오후’ 미국의 앞날과 새로운 도전

오늘날의 미국은 아침이 아니다. 기껏해야 저무는 오후다. 지금 미국은 ‘대접전’을 앞두고 있다. 상대는 일본과 새로이 통합되고 있는 유럽이다. 미국은 빠른 시일내 이 상황의 의미를 깨닫고 적응하지 않는다면

셋 중에 골짜로 떨어질 위험에 봉착해있다. 짐작컨대 승자는 유럽이지 싶다.

이것은 현재 MIT의 경영학 교수로 재직중인 레스터 쉐로우(Lester Thurow) 교수의 예측이다. 그는 이미 「제로섬 사회」를 통해 유력한 경제분석가로서 그리고 뛰어난 경제현실의 해석가로서 명망을 드높이고 있는 사람이다. 사실 이번엔 상재한 「대접전」(“HEAD-TO-HEAD, The Coming Economic Battle Among Japan, Europe, and America” 336 pp. New York: William Morrow & Company)은 앞서 그가 제출했던 「제로섬 사회」를 위시한 여러 저작들보다 훨씬 시사적이고 짜임새가 있다. 물론 미국은 군사적인 의미에서는 앞으로도 초강대국으로 남겠지만, 과거 역사속의 초강대국들, 이를테면 로마나 근대이전의 중국이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오랫동안 존재했으면서도 경제적인 경쟁력은 점차 소멸했듯 미국 또한 이에 비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럽은 알다시피 이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이 완결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게다가 인접한 동유럽의 높은 교육수준과 낮은 임금수준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진 집단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유럽을 통합이 완성되는 날, 가령 이탈리아에 공장을 가진 미국과 독일기업은 비교하지 못할 차이가 날 것이다. 유럽인들은 미국이 일본에게 시장을 빼앗겼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으므로, 미국의 경쟁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벌써 유럽의 기업인들은 공공연히 “우리는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이미 그랬던 것과 같은 일을 유럽에서는 가능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전임 수상 에디트 크레송의 말은 유럽인들의 일본에 대한 시각이 어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즉 “일본인들은 세계를 정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미국시장을 이미 먹어버렸고 이제는 유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해서 미국시장을 그렇게 손쉽게 먹어버렸는가? 우선 일본은 중앙정부에 뛰어난 공무원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산업분야, 말하자면 로봇, 생명공학,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교통정리에 ‘행정지도’를 통해 개입한다. 이들은 우월한 미국 기술을 따라잡아 일본에서 생산해낼 때까지 그러한 ‘행정지도’를 계속한다. 미국은 눈부신 소비사회로 발전해왔지만 일본의 소비자들은 오히려 가난하며 내일을 위해 저축하는 사람들이다. 일본인들은 색다른 카드놀이, 말하자면 전략적 정복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가령 그들이 미국내에 공장을 건설할 경우 그들은 일본의 최고기술을 활용하며 결코 외국인들을 최고직위에 임명하지 않는다. 일본의 일반 소비자들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제국건설 공무원들은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고 이 욕구를 제국 내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이웃제국들을 정복함으로써 일본제국을 세계최고의 경제력으로 만드는 일”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자본주의는 주주와 소비자에 봉사하도록 짜여져 있다. 그러나 일본 자본주의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 말하자면 기업중심의 논리로 짜여져 있다. 21세기는 아마도 이러한 기업의 제국시대가 될 공산이 크다.

한편 미국으로서도 좋은 소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수출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역사적인 측면에 있다. 이 거시적인 전망에 있어 미국은 좀체 밝지 못하다. 몇년째 미국의 예산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외국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쉐로우교수의 판단에 의하면 연방예산의 적자는 가장 큰 문제이다.) 더욱이 미국은 변호사가 많이 생산해내면서 기술자는 생산해내지 않고 있는 현실이 상징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단기적인 목표달성에 안달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의 교육은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미국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일이 시급하고 나아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

정해야 한다. 과거 레이건대통령의 낙관주의는 이해할 만하지만 그의 처방은 매우 안이한 것이라고 본다. 그가 보기에 미국이 기멸 ‘방위선’은 허물어졌고 “이미 징기스칸의 군대(일본의 경제력)는 코앞에까지 밀려들었다.”

쉐로우교수의 진단은 정확하다. 사실 오늘날 그의 진단은 학계의 일반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비즈니스 위크誌도 새로운 형태의 산업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쉐로우교수의 위기의식은 공감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뛰어난 공무원에 의한 경제에의 개입과 주도라는 양식은 미국과 같은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그다지 적절한 처방은 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미국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아들이 쓴 부자 아버지의 역설적 회상기

폴 멜론의 인생에서 돈은 지천으로 많았다. 그의 아버지 앤드류 멜론은 오늘날 기준으로 하자면 투기 사업가(벤처 캐피탈)였다. 아들의 회고에 의하면 그 당시 그는 대단히 머 리회전이 좋은 은행가로서 어떤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동물적 직감으로 알아채고 있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84세의 노인이 된 그의 아들 폴 멜론에 의한 회고록 「은 숟가락에 관한 회상」(“REFLECTIONS IN A SILVER SPOON, A Memoir”, By Paul Mellon With John Baskett. 444pp. New York: William Morrow & Company)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무슨 벤처 캐피탈이니, 은행가니 하는 우아한 이름의 사업가라기보다는 일종의 브로커, 돈을 굴러 이윤을 따 먹는 사람이었다. 물론 그 돈놀이 대상이 스탠다드 오일이나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세계적 대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해도...

그의 아버지 앤드류는 많은 돈을 모았음에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는 45세의 중년에 이르도록 독신으로 살다가 기껏 결혼했

을 때 아내와의 나이 차이가 25살이나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영국 양조업자의 발랄한 딸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결혼과 함께 방랑과 고독이라는 것에 눈뜨게 된다. 저자는 이혼으로 막을 내린 ‘부모들의 불행한 결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두 자녀, 즉 회고록의 저자인 폴과 그의 여동생 에일사는 대서양을 두고 이 집, 저 집으로 오고가는 신세가 되었다.

‘내면적인 우울’은 멜론의 소년기와 청년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적 개념이라고 할 만했다. 부모들이 제각각의 삶에 빠져있는 동안 어린 그는 방안에 가득찬 인형들과 대화하는 부유한 집안의, 그러나 囚人 처럼 시절을 보냈다. 이 책 속에서 그의 부모들은 매우 대조적인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불같고 격정적이며 반항적인 인물로,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청교도적이고 담백하며 어떤 야망 그러나 결코 천박하지는 않은, 미술품에 대한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의 아버지와 헨리 크레이프릭이 함께 유럽을 여행하면서 사들인 방대한 예술작품들은 미국인들에게 하나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워싱턴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는 바로 앤드류 멜론의 수집품들을 바탕으로 그의 아들이 세계적 갤러리로 만든, 二代에 걸친 작품이라고 할 만하다.

1912년 그의 어린 나이에 겪었던 부모의 이혼은 그를 혼란스럽고, 외롭게 만들었지만 그보다는 어린 여동생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성숙함도 그에게는 있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매양 어렵고 두려운 존재였지만, 한편 어머니에게서는 연민과 사랑을 느끼곤 했다고 한다. 지금 94세의 나이로 생존해 있는 그의 어머니와는 우정 비슷한 교감을 나누었지만, 그러나 사랑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그는 쓰고 있다.

동화의 주인공에게나 쓰는 문자인 ‘쓸쓸한 부자 소년’은 피츠버그의 명문 새디사이드 아카데미를 거쳐 예일대학과 캠브리지대학에서 두루 수학한다. 그의 주위는 아버지의 직원들, 집사들이 매양 둘러싸고서 그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사람의 장벽은 피치못하게 동료들과의 교류에 장애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는 사람이 그리

웠다고 한다. 어찌보면 그의 성장기는 중세유럽의 어린왕자의 환경과 흡사한 것이라고나 할까...

아버지 앤드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 그를 좇아서 사업가가 되기를 바랐다. 통속적인 도식이긴 하나 이들은 그 길을 원치 않았다. 아들은 세계무역이라는 남성적이고, 야심적인 일들에 보다는 거대한 재산이 마땅히 가져야만 할 어떤 책임에 더 관심이 깊었다. 그 책임감은 재산이 지성적이고 예술적인 창조에 기여해야만 할 것이라는 방향으로 갈래잡게 되었다고 그는 회상한다. (이 책의 부록에 의하면 그가 재단에 출연한 액수는 6억달러였다고 한다. 아마 이러한 점은 요즘의 부자들에게도 일종의 교시가 될 것이다.)

아버지와는 달리 폴은 훨씬 젊은 나이에 인간의 삶에는 돈모으는 것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듯싶다. 그런 인식이 젊어서부터 어떻게 가능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캠브리지의 고독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삶에서 어떤 자극을 받았다”고 술회한다. 어찌보면 그는 어린시절과 청년시절을 고독이라는 환경을 통해 삶을 직시하는 훈련을 받았던 셈이다.

요컨대 그는 돈많은, 그러나 외로운 삶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은 많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이것이 가족의 귀함에 대한, 이웃의 귀함에 대한, 그리고 친구와 사회의 귀중함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었던 것이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귀중하다고 느낀 그 마음의 ‘귀중함’에서 그는 재산의 보다 귀중한 쓰임새를 발견하게 됐고 그것이 그의 삶을 귀중하고 부유하게 만든 것이었다. 참으로 삶이란 묘한 것이어서, 돈을 좇아 스스로 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오히려 천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반면,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귀하게 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 귀해지는 역설이 가능한 것이 인간사인 것 같다. 그러한 아름다운 역설을 폴 멜론은 자신의 지난 삶을 증거로 대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 「은 숟가락에 관한 회상」은 두루 읽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